

급변하는 OTT 트렌드의 나무와 숲을 본다

OTT트렌드 2025

유건식 지음

‘눈물의 여왕’, ‘부빙’, ‘귀멸의 칼날’, ‘살인자아남감’,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선재 업고 튀어’, ‘싱어게인3’... 올해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들이다.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등 ‘뉴 미디어’가 지상파와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를 밀어내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모바일을 활용한 OTT 앱 이용시간(2023년)은 113.2억 시간에 달한다. 나아가 MZ 세대들은 OTT 대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급변하는 OTT 등 ‘뉴 미디어’의 향방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국내 OTT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신간 ‘OTT 트렌드 2025’를 펴냈다. 유건식 전 KBS아메리카 대표와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 연구소장은 지난 2022년부터 OTT 흐름을 분석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망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저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는데 OTT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와 역사적인 기록유지, OTT 발전방향에 대한 합리적 전망, 젊은 세대와 호흡하기 위함이다.

저자들은 부제 ‘성숙기에 접어든 OTT 시장의 선택과 전망’을 붙인 신간 ‘프롤로그’에서 올해 국내외 OTT 시장의 흐름을 ‘가입자 확대에서 수익성 중심’과 ‘OTT의 AI(인공지능) 도입’ 등 10가지로 정리한다. 2장은 지난해 출간했던 ‘OTT 트렌드 2024’에서 전망한 국내외 OTT 이슈를 리뷰했다. 3장은 ‘구독자 확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감독 황동혁)은 전세계 2억6520만명(22.1억시간)이 시청한 인기 콘텐츠였다. 지난 12일 미국 LA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 2’ 팬 이벤트. /연합뉴스

전쟁의 마갑’과 ‘티빙과 웨이브 통합’ 등 국내외 글로벌 10대 이슈를 뽑아 정리했다.

4장은 내년도 OTT 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저자들은 “글로벌 OTT 시장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각자도생과 합종연횡이 공존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에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서비스들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번들링(Bundling)은 더 고도화되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자들은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채널을 ‘새로운 한류(韓流)의 중심지’로 주목한다. “FAST 채널과 서비스 이용자가 성장하면서 K콘텐츠의 유통 채널로도 FAST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2025년의 ‘K-FAST’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다. 또한 저자들은 새해 국내 OTT 이슈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전망’과 ‘국내 OTT 시장

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광고시장의 유의미한 플레이어 가능성’, ‘드라마제작 감소와 예능제작 확대 경향’, ‘스포츠와 애니메이션 장르의 가치’ 등 5가지 전망한다. 5장과 6장은 해외와 국내 OTT 이용행태를 정리했다.

저자들은 22대 국회에 ‘중·장기적 통합 미디어 법제 제정’ 등 OTT 지원정책들을 제안하며 3년째 연말에 펴내는 ‘OTT 트렌드’가 정부와 산업계, 학계에서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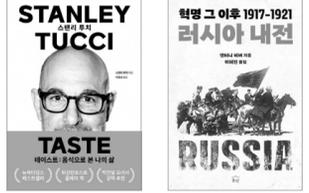
“OTT 지형은 여전히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그런지 제도정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3년째 맞는 본 도서가 산업계에서 OTT 시대에서 미디어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도 정비의 밑바탕이 되고, 학계의 OTT 연구에서 주요한 참고문헌이나 교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형설eLife·1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

새로운 책

▲두루미 아내=저자는 외딴 바닷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에세이에 마음을 담는다. ‘직공들’, ‘말하자면 디프 블루 등 각각의 장에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야기들은 저마다 타인을 돌아보지만 그 방향성의 끝은 책을 읽는 독자에게 향해 있다. 이외에도 ‘램프를 든 여인’ 등 개성 있는 필치로 씌어진 수필을 볼 수 있다. <열린책들·1만8800원>

▲결국 회복하는 힘=인간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회복탄력성일 것이다. 9·11 테러 직후나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PTSD를 겪지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유연성’에 주목했음을 언급한다. 유연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책은 ‘유연화 단계’를 제시한다. 후천적으로 마음의 유연함을 갖춰야 인간이 최악의 사태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퀘스트·2만1000원>

▲테이스트=음식으로 본 나의 삶=이탈리안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의 음식 기쁨을 담았다. 가장 기초적인 알리오 올리오 만들기부터 파지올리 등 다양한 음식 요리법은 유럽 레시피의 확장을 보여준다. 책에는 음식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던 기억들, 전통음식에 대한 자긍심, 저자 스탠리 투치 가족이 연구해 온 맛을 소개한다. 어릴 적 빈곤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마주했던 역경들, 음식을 향한 열정과 요리 기법 등이 교차 서술된다. <이콘·1만7800원>

▲러시아 내전-혁명 그 이후 1917-1921=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제국이 무너졌던 1917년, 당시 120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내전이 발생했다. 트로츠키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정권과 이에 대항하는 백군이 싸웠기에 ‘적백 내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을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 등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펼쳐졌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 러시아 내전을 파헤친다. <놀라·3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기는 문해력 늘어나라=문어나라 마을에는 여섯 가문이 살고 있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씨네, 동작을 가리키는 움직임씨네를 비롯해 이음씨, 어찌씨, 그림씨, 토씨 등은 서로 이웃사촌이다. 각각 명사, 동사, 조사 등을 가리키는 국어 개념을 의인화해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어마을의 식당, 학교 등을 거치며 문해력의 비밀을 풀어간다. <풀빛·1만3000원>

▲작전명 컵케이크=계단 밑 조그만 쥐 구멍에서 함께 사는 진저와 맥, 둘은 부엌에 있는 간식을 몰래 가져온다. 향긋하고 커다란 컵케이크 하나를 발견하지만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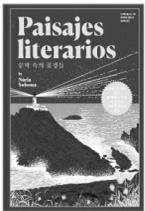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저와 맥은 주변에 숨겨져 있는 나사, 바퀴, 지렛대, 도르래 등을 활용해 기둥에 옮기기 어렵던 물건이라도 쉽게 이동시킨다. <보고북스·1만4500원>

▲레오의 특별한 꿈=사람들의 꿈이 ‘델’이라는 특별한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공 레오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레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가 마법사에게 가져 달라고 만들어달라 부탁하지만, 델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 금방 들롱날 것이라 경고한다. 과연 레오는 진정한 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노랑상상·1만5000원>

보물섬·작은 아씨들...25편 작품 속 장면들 펼쳐진다

문학 속의 풍경들

누리아 솔소나 그림 리카르도 랜돈 글, 남진희 옮김



잔잔히 그림을 보고 있으면 소설 속 주인공이 등장할 것만 같다. 증기선이 유유히 움직이는 미시시공의 풍경 속에서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숨어 있는 듯하고,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부는 요크셔의 황량한 들뜬에서 히드클리프와 캐서린의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다.

소설을 읽으며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들을 상상해 본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듯하다. 그림책 ‘문학 속의 풍경들’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온 문학작품의 주요 무대가 된 장소들 한 컷의 그림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스페인 출신 누리아 솔소나가 그림을 그리고 리카르도 랜돈이 글을 쓴 책은 ‘2023, 2024 dPICTUS가 뽑

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 100’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책을 넘기면, 대형 세계 지도가 펼쳐진다. ‘보물섬’, ‘안나 카레니나’, ‘볼레라 시대의 사랑’, ‘빨강머리 앤’ 등 25편의 작품이 탄생한 풍경 속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다. 프롤로그를 쓴 아나 가랄론은 책에 대해 “사랑과 미움, 의심과 변화, 기쁨과 슬픔, 비밀과 거짓, 우연한 만남과 모험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번쯤 마주하게 될 삶의 다양하고도 특별한 순간들을 깊고도 눈부시게 펼쳐보인다”고 소개했다.

짧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그림책이지만, 어떤 책보다 ‘오래’ 눈길을 주게된다. 즐기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책 속에서 뽑아낸 ‘한 문장’, 작품의 무대가 된 장소들, 소설의 탄생 배경과 작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림을 보고 글을 읽고, 다시 글을 읽고 그림을 살피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무엇보다 따스한 색감의 일러스트가 전해주는 위로가 크다.

‘작은 아씨들’(루이자 메이 울컷)의 배경이 된 메사

추세츠의 눈 오는 날 풍경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네 자매가 재잘대며 눈길을 걸어 로런스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셀마 라겔뢰프의 ‘닐스의 신기한 여행’을 탄생시킨 스웨덴의 스몰란드는 마음의 평안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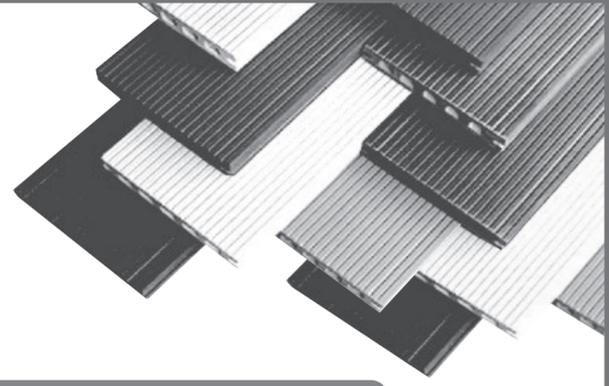
화가로만 알고 있었던 토베 안손의 ‘여름의 책’도 마음에 남는다. 여름방학 동안 고즈넉한 섬에서 함께 한 할머니와 손녀의 애절한 기억들을 담은 소설의 배경이 된 핀란드만의 풍경은 아름답고 따뜻하다.

책은 그밖에 ‘정글북’이 탄생한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의 울창한 정글, ‘드라큘라’에 등장하는 성이 있는 루마니아의 고갯길 등을 펼쳐보인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늘꼬리뱀산’과 낡은 집이 인상적인 다이 시지에의 ‘발차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이탈리아 나폴리만 포르치다섬의 풍경을 묘사한 엘사 모란테의 ‘아서의 섬’ 등도 한번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로즈윙클 프레스·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